

부활절, 그 다음날
The day after Easter
(골로새서 Colossians 3:1-17)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인사 나눠 보십시오.
Hallelujah! I convey the peace of the resurrected Lord.
Let's share the Easter greetings together in joy.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부활절이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부활 하셨네!' 기쁘게 찬양하지요.
문제는 부활절 이후, 부활절 그 다음날 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어둠 속을 살아 갑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When it comes to Easter, we praise our Lord for overcoming the power of death. 'Jesus lives again! He was resurrected from the grave!' We praise joyfully. The problem occurs the next day after Easter. The disciples of the Lord, who heard of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still coul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ith all doors locked, they stayed in the darkness behind the thick curtains. If this fear is not changed to hope, then the power of true resurrection can't be experienced.

왜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떨고 있습니까? 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부활하려면, 다시 살아 내려면, 반드시 먼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는 척, 죽은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만, 그 이전에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새 생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하지요.

Why were His disciples still trembling? Why can't they enjoy the joy of resurrection? To resurrect, to live again, you need time to die first. It is not just to pretend to die but to die completely. Christianity, we believe, is 'the religion of death' prior to the 'religion of life'. There is no resurrection without death. There is no new life without death. This death, of course, does not mean the death of the flesh but the death against sin and the earthly world.

영적 죽음은 영원한 분리, '단절'을 의미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이상 나와 죄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나와 세상이 영원히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살면서 늘 온갖 죄의 유혹을 받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가능해 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부활사건에 대해 몇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활을 하나의 픽션, 소설로 보는 견해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Spiritual death means an eternal separation, a 'disconnection'. The death against sin means that one has nothing to do with sin. The death against the earthly world means that one is separated from the world forever. Would this be possible if one is always tempted to all kinds of sins while living on this earth? The answer is that it's impossible with just one's own strength. However, it is possible by believing in the blood of the Cross. It is possible to li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in one's daily life. People tend to have certain views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first view on resurrection is that it is fiction. To correct this misconception and show clearly who the Lord is the purpose of Colossians.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20-22)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Previously you were disconnected from God. (Colossians 1: 20-22) Because of your evil deeds, you were away from God. The Lord opened the path of peace with the blood of the Cross.

To lead you to God, He himself came to this earth in a human body and died on the Cross.

The Lord has made you blameless and innocent to set you free before God.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단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을까 말까,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 먼저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 됩니다.

Our Lord has come to this earth with only one purpose. He came to die on the Cross for us to atone for our sins. Since we cannot die for the world and sin, He died instead. Since we kept on hesitating to die, He died first. He knew well that we could not die by our own strength. The Son of God has died for us. We believe this fact and join in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부활은 허망한 픽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잠시 있다가 벌써 사라진 종교가 됐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물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운동도 없습니다.

정녕 부활이 없었다면, 목숨 내놓고 예수를 따르는 지하교회도 없습니다.

Resurrection is not a futile fiction. Numerous people have witnessed the resurrected Jesus. If there was no resurrection, Christianity would have been a religion that disappeared long ago. Without resurrection, the explosive Holy Spirit movement of the early church w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resurrection, underground church that followed Jesus, risking their lives would not have existed either.

부활에 대한 두번째 입장은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는 겁니다. 픽션과는 좀 다릅니다. 부활을 믿지만, 과거역사 속에만 가둬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2 천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활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심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창조 따로, 부활 따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창조는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십니까? 이런 태도는 마치 ‘하나님 예전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무능력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박제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The second view on resurrection is to look at resurrection as only a ‘historical event’. It is slightly different from fiction. Although resurrection is believed, it’s considered as past history. The Lord had risen surely 2,000 years ago. However, ‘such event of resurrection does not take place any more’. If they believe the fact that God molded life, as well as universe, then they must confess that He is the Lord of our life and death. We cannot keep the creation and the resurrection separate. Why do you believe in creation but cannot believe in resurrection? Isn’t such attitude implying that ‘God worked with such power in the past but is now powerless? Loving brothers and sisters. Resurrection is not fossilized faith. Let us go to God, who is the lord of resurrection, still ever present in all that we do today.

부활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입니다.

The resurrection event is ‘on-going present form’ happening even at this moment.

정말로 부활이 필요한 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믿은지가 얼마인데, 왜 저사람은 바뀌지 않나?’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난 왜 이토록 꿍꿍이게 바뀌지 않나?’ 부활은 다른 사람을 뒤집는게 아니라, 내 마음 속을 갈아엎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덩달아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 하십시오.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되길 축복합니다.

Where resurrection is really needed is in our heart. The reason why Jesus rose again is for us to be born again inside. People ask, 'He has believed in Jesus for so long but why does he not change?' Let us change this question. 'why do I resist to change so persistently?' Resurrection is not an event that changes others but plows our inner heart. We should not try to change the world, but the world will change if I change first. That's right. Let's experience the resurrection with the Lord today. I bless that you become a Christian who can experience the wonderful power of resurrection.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본문은 옷의 이미지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보면,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벗어야 될 옷, 그리고 입어야 될 옷을 잘보여 줍니다. 자, 먼저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될 옷입니다.

To be resurrected, one must die first. The scripture explains resurrection in an image of clothes. If you see what people eat, you can tell how well they manage their health. When you listen to what people speak about, you can sense their characters. The kind of clothes they wear reveals the state of their minds. Today's scripture shows well what clothes to take off and what clothes to wear. Let us first tackle the clothes that we need to take off decisively.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골로새서 3:5-6)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Colossians 3:5-6)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 합니다. 육신의 옷은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모든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흙먼지가 묻거나, 얼룩진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옷에는 그토록 무관심 하십니까? 혹시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영혼의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절 아침, 영적인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When the clothes get dirty, we wash them. We pay close attention to our clothes for flesh. 'How would others view me?' All our senses are raised extra high. We don't walk on the street in broad daylight wearing clothes with muddy soil or dirty spots. But why are we so indifferent to spiritual clothes?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vv.8-9)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을 몰아 내십시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But now you must also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anger, rage, malice, slander, and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Do not lie to each other,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with its practices. (verses 8-9)

부활은 아주 오랜 옛날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신비입니다.

일년에 한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순간 부활의 능력 앞에 바로서야 됩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옷을 미련없이, 아낌없이 벗어 던져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서적 죽음’ 입니다. 세상 옷은 다시 빨아서 입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러운 옷은 불살라 태워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박히는 삶이지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Resurrection is not one-time event that took place a long time ago. It is a mystery that renews us continuously every day. We must stand before the resurrection power moment by moment, not just once a year on Easter. We can throw away our dirty clothes with no regret and no attachment. Expressed in another way, it's a 'biblical death'. We can wear our body clothes again after washing, but the spiritually unclean clothes should be burned away. Crucify them on the cross. Only after complete death can resurrection happen.

피지 원주민들이 동네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형수 머리를 그 바위에 짓이겨서 죽입니다. 피가 바위 위에 철철 흘러도, 그 피를 절대로 닦지 못하게 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를 지면 저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킬링 스톤이라 부릅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바로 그 킬링 스톤 옆에서 세례를 베푹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In the village of Fiji, the capital punishment is carried out in a very special way. At the village center the head of the prisoners are crushed to death. No matter how much blood flows over the boulder, that blood is never wiped away. The blood is left as a warning to the village people of the consequence if crime is committed. That's why they call that boulder killing stone. Missionaries in turn use this killing stone to baptize the village people to let them know that their sins are now completely crushed/wiped away to the world while being baptized.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11, 개역개정)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Romans 6:11)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 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죄에 종노릇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사망선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을때, 사탄은 더이상 자기 맘대로 부려먹을 노예가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늘 한짝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die to sin? Before we accept Jesus as our savior and Lord, we were enslaved to sin. With our strength and will power alone, there is no way to get out of Satan's temptation. The only one way to be free from the chain of sin is to kill sin and wipe it away from

our existence. When we can do this, Satan has no longer a slave he can manipulate to his heart's content. This is why death and resurrection always go together. The resurrection without death is a fake resurrection.

부활절은 옷장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의 옷장을 활짝 열어 보세요.

회개하며 눈물 콧물 다 빼내도, 더러운 헌옷 버리지 못하면 또 꺼내 입습니다.

값비싼 옷일수록 버리기가 힘듭니다. 본전 생각하면 못버립니다.

화려한 옛 추억이 담긴 옷도 못버려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옷은 무조건 모두 다 불살라 버리세요.

죄와 세상의 옷을 벗었으면, 이제 새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벗기만 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 벌거숭이 임금님이 됩니다.

Easter is a time to clean out our closet. Let's open up your spiritual closet.

Even though we repent with tears, if we don't throw away our dirty old clothes, we will end up wearing them again. It's even harder to throw away expensive clothes. We can't throw them thinking about how much we paid for it. It's also hard to throw away clothes with fancy memories. No matter how good they may look, burn all the clothes God doesn't like. Now you have taken off the worldly clothes of sin, it's time to clothe ourselves with new clothes. If we just take off and don't wear anything, we will become the naked king.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 [새옷]이 시작됐습니다. (vv.12-13)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주께서 용서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A new life (new clothes) has started in our life. (vv. 12-13) You are becoming anew more and more in the new life. Have compassion for others. Treat others with kindness, gentleness, and patience. Forgive rather than having grievances, and forgive them even if they harm you. As the Lord has forgiven us, shouldn't we forgive others?

반드시 새옷을 입어야 됩니다.

헌옷 위에 새옷을 걸쳐입는게 아니라, 헌옷은 벗고 새옷만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벗고, 생명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은 2 천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옷을 입는 생명입니다.

부활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가지가 있습니다.

We must clothe ourselves with new clothes. It is not just wearing new clothes over the old, but we must take off the old clothes and wear only the new clothes. That is what resurrection is all about. Taking off death and clothe with life. Resurrection is not an incident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but it is the life of clothing ourselves with new clothes every day. There are 3 important factors about the incident of resurrection.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vv.14-15)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vv 14-15)

사순절 동안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만의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먼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During Lent, we tried to take part in Lord's suffering with contemplation and prayers. I bless all of you to take part in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I bless you to experience continuously the resurrection of rising from death.

If we want to experience the continuous life of resurrection, we first have to die every day. It is difficult. Do not try to do it alone. Please remember to lean on the Lord for help.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vv.1-2)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vv 1-2)

우리 마음, 속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만 입을 수 있습니까?

It is about our heart, the inner person. It is the mindset of Christians who live by the power of resurrection. Now, as I wrap up today's sermon, I want to tell you a way to achieve this. How can one throw away the old clothes and wear only new clothes?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v.17)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vv 17)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부활했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절, 그 다음날’ 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한주가, 한달이, 일년내내 부활절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과 평화, 감사로 여러분의 부활절을 정성껏 가꾸 나가십시오.

I want the life of resurrected Lord to govern the life of you and I. I bless your lives to become anew every day, and become holy like the Lord. Our Easter doesn't end with today's service. We can't take our guards off because we have resurrected once. What's important as Easter is 'the day after Easter'. I want your day, week, month, and the whole year to be Easter. I want you to nourish your Easter with love, peace, and thanksgiving.

어느 교회에 늘 아파서 휠체어에 실려 나오는 여덟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 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 주면서,

부활절에 교회올 때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 오라고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 봅니다.

꽃, 나뭇잎, 곤충, 애벌레등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휠체어에 탄 소년의 차례 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텅비어 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많이 아팠나 보구나"라고 위로했지요. 하지만 소년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ere was an eight-year-old boy who came to church on a wheel chair. The Sunday school teacher gave empty plastic eggs to children and told them to fill them with something with life when they come to church on Easter. On Easter morning, children opened their eggs one by one. They filled them with variety of things, flower, leaf, insect, and larvae. When it was the boy on the wheel chair's turn to show his egg, it turned out to be empty. The other children laughed when they saw the empty egg. The teacher said, "it's ok if you couldn't get what was requested. You must have been ill." The boy in turn replied to the teacher.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텅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 소년은 10 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습니다.

"Teacher, I filled it with life. This is the tomb of Jesus. Wasn't his tomb empty since Jesus resurrected? The empty tomb represents Jesus' resurrection." The boy died 10 months later. On his funeral, they put the empty plastic egg on his casket, instead of flowers.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끊임없는 새 생명,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Halleluiah, He is risen, Jesus is risen!

Halleluiah, I bless you with everlasting new life,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every day.